

5/5(수) 다니엘 묵상 15

다니엘 3:19-2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어명을 어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고 불 속에서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풀무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이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다는 그들의 단호한 의지에 느부갓네살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느부갓네살의 어명은 곧 신의 명령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15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불꽃에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바벨론 사람이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러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 무사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입힌 옷들은 불에 더 잘 붙게 하기 위한 바벨론 사람들의 조치로 보입니다(**21절**, “**.. 그 사람들을 겹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고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풀무불 안에서 걸어 돌아다니는 네 사람을 보게 됩니다(**24절**,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왕이 ‘놀랐다’는 표현은 단순히 깜짝 놀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불 때 ‘간담이 서늘하도록 놀라다’는 뜻으로 이것은 놀라움을 넘어 이 상황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충격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이적을 또 다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신들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풀무불을 두려움 가운데 지켜보고 있을 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외에 또 한 사람이 풀무불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는 누구였을까요? 풀무불 속에 있던 세 친구들 외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학자들 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먼저 그를 구약 시대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와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견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존재는 이전에 묵상했던 여호수아와 사사기 말씀에서도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수 5장; 사 6장; 13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우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그의

백성들에게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입술로 부르게 되었습니다(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려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이전에도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알아 맞추고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자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감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친구가 당한 불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고난 받는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자신의 종이라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과제는 우리가 가진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조건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세상을 욕하며 무시하거나 또는 세상을 도피해서 우리끼리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예, 아미쉬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게 함께 할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과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의 공동체는 다시 붙잡아주고 기도와 격려로 서로를 세워주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스포츠나 문화 활동, 자녀 교육, 인맥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람선'의 역할이 아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항공모함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엡 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영적 군사 기지 그리고 더욱 성숙한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미국 안에 주의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영적 기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우리 교회의 아라회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오만 김데이비드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